

수줍음, 협동심, 또래 관계 어려움 간의 관계에서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Received: October 15, 2022
Revised: January 15, 2023
Accepted: February 28, 2023

김상원¹, 이혜숙², 남동현³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¹, 행복한 아이 연구소/ 심리상담사²,
두드림 정신과의원/ 심리상담사³

교신저자: 남동현
두드림정신과의원,
경기 부천시 길주로 181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yle that provides structu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yness, teamwork, and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E-MAIL:
happyndh@naver.com

Sangwon Kim¹, Hyesook Lee², Donghyun Nam³
Hanshin University/ Professor¹, Happy Kids Lab/ Psychological Counselor²
DODREAM Clinic/ Psychological Counselor³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의 수줍음이 협동심을 통해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초등학교 4학년 2,607 명의 1-3차년도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줍음은 또래 관계 어려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협동심은 또래 관계 어려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수준에 따라 수줍음이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줍음이 협동심을 매개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미치는 경로가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한 의의 및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고 실천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수줍음, 협동심,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 Copyright 2023.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며 양육되는 세계와 가정 밖 또래 집단에서 사회적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세계, 이 두 개의 구별된 세계를 통해 사회화와 성격 발달을 해 나간다(Harris, 1998).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 형제보다 또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Ellis et al., 1981), 이는 아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교류가 증가하며 또래의 영향이 점차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학령 후기 아동의 사회적 고립과 같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아존중감을 비롯하여, 외현화 문제 및 내재화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였다(Hymel et al., 1990). 반면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감을 증가시켰다(유설희 외, 2015). 또래로부터 지지받는다 고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졌고 우울 증상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으며(정문자, 여종일, 2009),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껴 학교생활을 잘한다(구은정, 박재황, 2016)는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이 시기 또래 관계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아동은 사회적 비교를 할 수 있는 학령 후기로 접어들면서 자기 개념을 형성할 때 또래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비중 있게 반영하기 시작하며 사회적 관계, 학업 성취에 있어 자기와 타인, 그리고 이상적인 자기와 자신을 비교하여 평가하게 된다(Harter,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수줍음(Shyness)이 높은 아동의 경우 인지, 정서, 행동, 대인관계 등 전반의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만성적 불안과 회피 지향적인 상호작용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도현심, 1995). 혼자 해결하는 과제나 또래 간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 위주의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과 달리, 고학년에 접어들면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과 대화 위주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이슬아, 심상민, 2017), 수줍은 아동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두려움과 자의식을 강도 높게 느낄 수 있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Coplan & Arbeau, 2008).

수줍음은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긴장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평가를 염려하여 또래와의 관여를 회피하는 개인의 생물학적 성향으로(Asendorpf, 1990; Kagan et al., 1988),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권위적 인물과 대화하는 것, 관심의 중심에 놓이는 것과 같은 낯설거나 사회적 평가의 상황에서 느끼게 된다(Asendorpf, 1989). 수줍음과 또래관계의 부적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연구(Kokkinos et al., 2016)나 수줍음이 높을수록 또래로부터의 선호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Eggum et al., 2022)를 통해 수줍음이 많은 아동일수록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Crozier(1995)는 사회적 접촉 상황에서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믿음은 억제 행동과 사회불안을 낳아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이후 부정적 자기평가로 연결되면서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술한 아동의 수줍음과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간 경로를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 매개변수와의 관계를 탐색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는 아동이 수줍을수록 사회 참여도를 포함해 사회적 유능성이 낮거나(송지윤, 김미숙, 2017) 사회 기술이 적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그 관계는 학령 전 아동에 비해 학령 후기에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Zhang et al., 2021). Evans(2001) 역시 수줍은 아동일수록 또래들과 상호작용하기를 억제하는 경향성을 보여 교실 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에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협동심(teamwork)은 개인 또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구성원들과 협력하며 집단 구성원이 원활하게 역할 할 수 있도록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대인관계역량(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으로 정의되며, 집단 활동에서 필요한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로 구성되는 개념이다(성은모, 백혜정 외, 2014; 성은모, 최창욱 외, 2014). 아동이 수줍음이 있는 경우 평균 보다 매우 적게 말하거나 침묵, 또는 철수하는 경향을 보이고(Crozier, 2020), 빈곤한 실용 언어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집단에 참여하는 모습을 덜 보이게 된다(Evans, 2001; Markovic et al., 2013). 실질적으로 Chen 과 동료들이 소그룹 토론과정에서 수줍음이 있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또래들과 대화를 시작하기를 더디하며 덜 듣는 경향을 보여 그룹 활동에 어려움을 보였다(Chen et al., 2021). 협동심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유아의 협동심이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정은, 2020), 초등학생 역시 협동 기술이 높을 때 또래관계가 유능한 집단에 속한다고 설명했다(김세연, 정애경, 2019). 즉, 수줍음이 집단 활동 내 협동심을 매개로 또래 간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신성숙, 유영달, 2015). 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보이는 행동이나 양육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Skinner et al., 2005). 많은 연구가 지지적 양육행동과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는데(Putallaz, 1987), 어머니의 애정, 합리적 지도를 높게 지각한 아동일수록 친사회적 행동, 통솔력, 도덕적 행동이 증가하였으며(김지신, 박성연, 1997), 온정적이고 애정 표현을 잘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며 또래와 상호작용 기회를 마련해주고 간접적으로 감독하는 중개·감독 전략은 또래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박주희, 이은해, 2001).

다수의 연구는 기질적 요인으로서 수줍음의 안정성을 언급하며 사회성 발달의 어려움을 예측하였는데, 이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Bullock et al., 2022; Zarra-Nezhad et al., 2018). 그러나 일부 연구는 아동의 수줍음과 부모의 양육행동 관계에 대해 비밀관적인 보고를 한다. 세부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의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방식이 낮을 경우 자녀의 억제적 행동과 사회적 유능감 간에 부적상관이 있었지만, 지지적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조절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Chen et al., 2014). 비슷한 맥락으로, 부모의 정신적 통제가 높은 경우 수줍은 자녀의 사회적응도가 낮았지만, 정신적 통제 정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Bullock et al., 2018). 이와 같이 수줍은 아동과 사회성 발달 간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갖는 비밀관적인 효과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기술을 예측하는 조절변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Costa와 그의 동료들은 자율성지지(Autonomy Support), 구조제공(Structure), 따스함(Warmth)을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지적인 양육행동으로 분류하였다(Costa et al., 2019). 그 중 구조제공은 양육 행동 연구에서 관심 있게 다루지는 요인이다(김소현, 김아영, 2012). 여기에는 일관되고 적합한 한계설정, 성숙한 행동에 대한 분명한 기대,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결과와 분명한 피드백의 제공, 일관된 규칙과 기대에 대한 안내가 포함된다(Costa et al., 2019; Grolnick et al., 2014). 아

동에게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적절한 수준의 도전을 하도록 돕는 구조제공은 아동의 유능성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Grolnick & Ryan, 1989) 자기조절, 학교에서의 학업 및 참여 등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김명숙, 2019; 김소현, 김아영, 2012; Grolnick & Ryan, 1989). 김도희(2020)의 연구에서도 양육과정에서 구조가 제공될수록 협동심의 하위요인인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해결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조제공은 유능감, 통제감, 학업에서의 참여도와 같은 성취 지표들과의 관련성을 살핀 연구들이 대부분이며(Farkas & Grolnick, 2010; Grolnick & Ryan, 1989), 아동의 사회정서지표들 간의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라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그 경로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수줍음이 협동심을 매개로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부모가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협동심이 아동의 수줍음과 또래관계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취약성이라 일컬어지는 수줍음이 높은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예방적, 치료적 개입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수줍음과 협동심이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아동의 수줍음이 협동심을 매개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수준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여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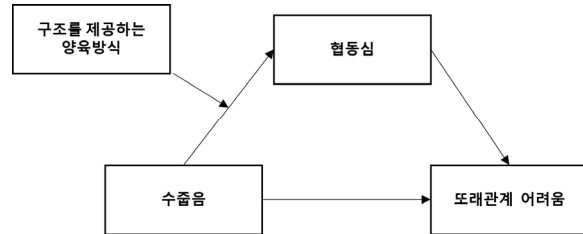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의 초등학교 4학년 1-3차년도 응답을 활용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은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능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주요한 시기(송지윤, 김미숙, 2017)로 알려져 있어 본 연구에서 해당 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KCYPS 2018 초등학교 4학년의 응답은 1차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2,607명의 것이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응답 모두를 사용하였고,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거의 동일하였다(남자 50.4%). 응답자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응답자는 중소도시(44.2%)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도시(40.0%), 그리고 읍면지역(15.8%)이 그 뒤를 이었다. 가구구성원에 대한 아동의 부모(또는 보호자) 응답에 따르면 양부모와 사는 가정이 85.3%로 가장 많았고, 한 조부모와 양부모와 사는 가정 6.7%, 한부모와 사는 가정 4.7%, 한 조부모와 한부모와 사는 가정 2.2%, 한 조부모와 사는 가정 0.8%, 그리고 기타(0.3%)로 구성되었다. 자녀의 주 양육자 대부분이 모(90.2%)였으며, 아

버지(5.6%), 할머니(3.1%), 할아버지(0.3%), 기타 친인척(0.5%), 형제자매(0.1%), 그리고 기타(0.1%)가 그 뒤를 이었다. 부모(부모가 안 계실 경우 보호자 각각) 각각의 최종학력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가장 높은 학력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대학을 졸업했다고 답하였고(4년제 대학졸업 40.3%; 2-3년제 대학졸업 24.4%), 고등학교 졸업(18.5%)이라고 답한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해 '보통(77.5%)'이라고 표기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하(11.7%)', '상(8.7%)', '최하(1.4%)', '최상(0.3%)' 이 그 뒤를 이었다. 동 질문에 대해 11명(0.4%)은 답하지 않았다.

연구도구

수줍음

김선희, 김경연(1998)은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 행동 척도를 개발하면서 '수줍음 행동(7문항)'을 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고, 이때 Cheek 과 Buss(1981)의 Shyness scale의 문항 일부를 참조하였다. 이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다섯 문항으로 제시하며 '사회적 위축'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동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변수명을 따라 '수줍음'으로 칭하고자 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보기는 4점 Likert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줍은 경향이 있다고 해석한다. 해당 문항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등을 포함하며, Cronbach alpha값은 0.859이다.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 조절과 내재적 동기 활성

화 관점에서 Skinner 등(2005)이 개발한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The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 Adolescent report: PSCQ-A)를 사용해 양육방식을 측정하였다. PSCQ-A는 따스함(warmth), 거부(rejection), 구조제공(structure), 비일관성(chaos), 자율성지지(autonomy support), 강요(coercion) 총 6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요인별 네 문항씩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도구는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다(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 본 연구에서는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구조제공에 해당하는 네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4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되, 세부적으로 양육과정에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에게 적절한 구조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이해한다(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문항은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등을 포함한다. Cronbach alpha값은 0.722이다.

협동심

본 연구에서 아동의 협동심은 김태준 등(2015)이 개발한 청소년 역량지수에서 사회참여 역량 중 협동영역에 해당하는 1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협동심 문항(예: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 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보기를 구성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협동영역에서 높은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Cronbach alpha값은 0.934이다.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

배성만 등(2015)은 또래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또래관계 질 척도를 개발하였고, 해당 도구는 긍정적 관계(8문항)요인과 부정적 관계(5문항)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도구에서 부정적 관계 질을 측정하는 다섯 문항을 사용하였다(예: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해당 문항은 응답보기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Cronbach alpha값은 0.604이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수줍음이 협동심을 통해 또래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지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동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8.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과 Hayes(2018)의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Model 7번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동의 수줍음(X)과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W)의 경우 평균 중심화를 시행하여 생성된 변수를 투입하였으며(홍세희, 정송, 2014), 연구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수식에서의 a, b, c는 효과크기를 의미한다.

$$M = i_M + a_1 X_c + a_2 W_c + a_3 X_c W_c + e_M \quad (1)$$

$$Y = i_Y + c'_1 X_c + bM + e_Y \quad (2)$$

조절된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복원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경험적 분포를 생성해 얻은 신뢰구간을 토대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MacKinnon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5,000회 실시해 얻은 95% 신뢰구간을 바탕으로 그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부모가 양육과정에 구조를 제공하는 정도(W)에 따른 매개효과가 동일하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pick-a-point 방식을 사용해 조절변수의 수준을 16%, 50%, 84% 구분하여 이에 그에 따른 독립변수의 효과값을 확인하였다(Hayes, 2018). Hayes (2013)는 Process Macro의 결과에 나타난 모든 효과에 있어 표준화 계수(A)보다 비표준화 계수(B)가 응답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주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든 효과를 비표준화 계수(B)로 보고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연구 변인들의 상관 및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으므로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은 충족되었다(Curran et al., 1996).

표 1. 주요 연구 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n = 2,607)

| 변인 | 1 | 2 | 3 | 4 |
|----------|---------|---------|---------|------|
| 수줍음 | - | | | |
| 구조제공 양육 | -.18*** | - | | |
| 협동심 | -.39*** | .35*** | - | |
| 또래관계 어려움 | .30*** | -.23*** | -.34*** | - |
| 평균 | 2.01 | 3.31 | 2.99 | 1.80 |
| 표준편차 | 0.74 | 0.52 | 0.54 | 0.48 |
| 왜도 | .33 | -.58 | -.24 | .25 |
| 첨도 | -.62 | .76 | .33 | -.03 |

*** $p < .001$.

아동의 수줍음, 협동심,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 간의 관계

먼저 아동의 수줍음과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협동심의 매개효과에 대한 직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은 설명력(R^2)이 .025, F 값이 31.333($p < .001$)으로 나타나 모형의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줍음과 협동심이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수줍음이 많을수록, 협동심이 낮은 아동일수록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수줍음이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가 양육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제공하는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표 3 참조). 해당 모형은 설명력(R^2)이 .004, F 값이 3.150($p < .05$)으로 모형의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수줍음과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수줍음과 협동심 간의 관계가 양육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제공하는 수준에 따라 조절됨을 보여준다($B = 2.523, p < .01$). 즉, 수줍음이 많은 아동일수록 협동심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B = -0.882$), 이 때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양수이므로($B = 2.523$)

표 2. 또래관계 어려움에 미치는 직접효과

| 변수 | 비표준화 계수 (B) | 표준 오차 | t | 95% 신뢰구간 | |
|-----|-------------|-------|------------|----------|--------|
| | | | | 하한 | 상한 |
| 상수 | 1.930 | 0.012 | 155.974*** | 1.906 | 1.954 |
| 수줍음 | 0.072 | 0.017 | 4.319*** | 0.039 | 0.105 |
| 협동심 | -0.004 | 0.001 | -6.499*** | -0.006 | -0.003 |

*** $p < .01$.

표 3.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조절효과에 따라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

| 변수 | 비표준화 계수 (B) | 표준 오차 | t | p | 95% 신뢰구간 | |
|-------|-------------|-------|---------|-------|----------|-------|
| | | | | | 하한 | 상한 |
| 상수 | -0.440 | 0.386 | -1.141 | 0.254 | -1.196 | 0.316 |
| A | -0.882 | 0.523 | -1.685 | 0.092 | -1.907 | 0.144 |
| B | -0.247 | 0.752 | -0.329 | 0.742 | -1.721 | 1.227 |
| A X B | 2.523 | 0.940 | 2.683** | 0.007 | 0.679 | 4.367 |

Note. A = 수줍음, B =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
** $p < .01$.

수줍은 정도가 유사한 경우 양육과정에서 아동에게 구조를 제공해줄수록 협동 영역에서 역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동의 수줍음이 협동심을 매개로 또래관계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의 수줍음이 협동심을 매개로 또래 관계 내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부모가 제공하는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절된 매개지수 = -0.011, 95% Boot CI: -0.0238, -0.001). 즉,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수준에 따라 수줍음이 협동심을 매개로 또래

간 부정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Pick-a-point 방식을 사용하여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아동에게 구조를 제공하는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에 대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 수준의 16%(-.556), 50%(-.056), 84%(.694)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해서 각 변수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에 따라 수줍음에서 협동심을 매개로 친구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구조를 제공하는 정도가 낮은 경우에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인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아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의 조절효과만 존재하였다. 다시 말해,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수준에 따라 수줍음이 협동심을 매개로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에 미치는 영

표 4. 조절된 매개효과에 따른 또래관계 내 어려움에 미치는 간접효과

| 구조 제공하는 양육방식 | 추정된 간접 효과 | Boot 표준 오차 | Boot 신뢰구간 | |
|--------------|-----------|------------|-----------|-------|
| | | | 하한 | 상한 |
| 상(.694) | -0.004 | 0.004 | -0.012 | 0.004 |
| 중(-.056) | 0.004 | 0.003 | -0.0002 | 0.010 |
| 하(-.556) | 0.010 | 0.005 | 0.002 | 0.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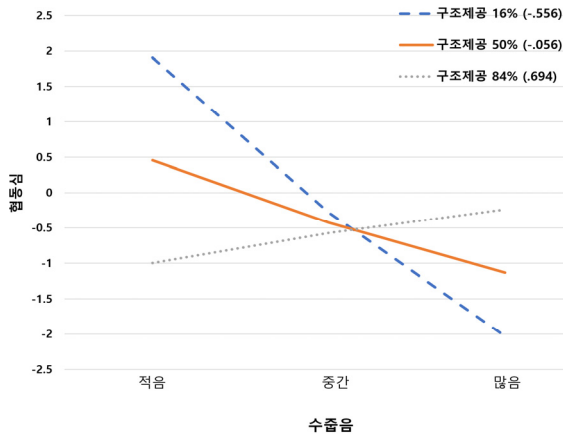


그림 2. 수줍음과 협동심 간의 관계에서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향이 달리 나타났으므로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이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수준에 따라 수줍음과 협동심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Pick-a-point 방식을 이용해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구조를 제공하는 수준이 높은 양육방식의 경우 수줍음과 협동심 간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구조를 제공하는 수준이 중간이거나 낮은 경우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구조를 제공하는 수준이 낮은 양육일수록 수줍음이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낮은 수준의 구조가 제공될수록 협동심을 매개로 또래 관계 어려움에 미치는 부적영향이 커지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능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주요한 시기인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수줍음, 협동심 및 또래관계 어려

움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구조 제공에 따라 그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령후기 아동의 기질적 요인인 수줍음과 아동이 상호작용하는 또래, 부모의 환경적 맥락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아동의 수줍음이 또래관계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줍은 아동의 또래관계 어려움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법의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수줍은 아동일수록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수줍을수록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커진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수줍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은 또래 무리 안에서 외롭고 거절되며, 불안정하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Kokkinos et al., 2016; Rubin et al., 2014). 뿐만 아니라 수줍은 아동은 또래관계 갈등 상황에서 아무 대처도 하지 않거나 자기비난을 하는 회피적 갈등해결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으로 인해 또래의 배제나 다른 사회적 문제가 생겨 사회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기도 한다(Markovic et al., 2013; Zhu et al., 2021). 또한 본 연구에서 아동의 협동심은 아동의 또래관계 어려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협동심 역량이 낮을수록 아동의 또래관계 어려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협동력이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정은, 2020), 또래관계가 유능한 집단의 아동이 협동기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김세연, 정애경, 2019)를 통해서도 지지되는 바이다.

둘째, 아동의 수줍음과 협동심으로 가는 경로에 부모의 구조제공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구조제공 양육방식은 사회적 규칙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한계설정, 예측 가능한 결과와 피드

백을 전함으로써, 아동이 집단 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또래들과 함께 조력할 수 있는 협동능력을 촉진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따뜻함, 반응성, 합리적인 지도, 성취에의 격려,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수줍은 행동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된다(Chen et al., 2014). 또한 애정과 자녀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와 방법 안내, 그리고 규율에 대한 논리적 설명 제공을 포함하는 권위 있는(authoritative) 양육방식이 아동의 친사회적인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Hastings et al., 2000) 역시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기능을 부분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협동심의 매개효과는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조제공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협동심의 매개효과가 있었으나, 구조제공 수준이 높거나 중간 수준에서는 조절효과만 존재해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모가 아동에게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를 돕는 구조를 덜 제공할수록 아동의 수줍음이 협동하는 역량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줍은 아동의 경우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 소망과 동시에 불안감으로 인해 사회적 접촉을 피하고 싶은 '접근-회피' 갈등이 발생하여(Asendorpf, 1990), 또래로부터 점점 철수되면서 협동심과 같은 사회관계기술을 연습하고 습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Stewart & Rubin, 2009). 따라서 또래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해주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집단의 활동과 규칙에 순응하면서

도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주장, 불안이 고조될 때 스스로를 이완시키는 방법과 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조언해주는 방식으로 구조를 제공해준다면 수줍은 아동의 협동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질적인 수줍음이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의 경험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짐을 설명했던 선행연구(임주희, 오지현, 2020)와 맥을 같이 하며, 교사의 구조화된 지침이 학생의 집단활동을 촉진했음을 밝힌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Jang et al., 2010).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드물게 연구되어졌던 학령 후기 수줍은 아동에게 초점을 맞춰 수줍음이 협동심을 매개로 또래관계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구조 제공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중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에서 외현화된 문제를 갖는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주목을 받아오던 수줍은 아동을 향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줍은 아동을 만나는 상담자, 교사, 부모는 발달에 걸쳐 안정적인 수줍음의 기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의 도움과 접근을 불러일으키는 미소, 부끄러움 등을 표현함으로써 또래들의 접근을 높여 사회적 상황에서의 노출과 대처기술연습을 가능하게 하고, 협동심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는 수줍음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볼 때(Schmidt & Poole, 2020), 수줍은 아동들이 대인관계역량인 협동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할 것이다. 유아 대상 연구에서 매우 심한 수줍음을 보이는 경우 자유놀이 안에

서 친사회적 기술 코칭, 감정 인식과 표현, 부정적 인 정서 조절, 그리고 의사 표현의 독려를 돕는 사회기술훈련(Social Skills Training) 개입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동 및 나눔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이 증가하였다(Li et al., 2016). 학령기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므로, 학령기 수줍은 아동을 대상으로 협동심을 비롯한 대인관계역량을 위한 사회기술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하는 것의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프로그램 안에 부모가 함께하는 병합훈련에 대한 개입 또한 고려해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는 ADHD 아동 대상 사회기술훈련에 부모교육을 병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아동의 부주의, 충동성, 과잉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더 감소시켜주며, 아동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설명한 바 있다(윤선영 외, 2007). 또한,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행동 억제력을 보이는 불안한 자녀의 구조제공과 관련한 코칭을 함께 병행한 프로그램은 유아의 두려움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행동을 증가시켰다(Barstead et al., 2018). 즉, 수줍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도 부모가 아동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따뜻함과 구조제공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재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는 자기 보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아 실제와 다르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모든 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고하지 못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외에 제 3자의 정보원으로부터의 응답을 함께 고려하여 동 모델을 탐색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수줍음이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또래 관계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가정 내 양육 방식과 협동심이라는 사회적 기술의 역할을 탐색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고 도출되었으나, 모형의 설명력이 크지 않으므로 연구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수준이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서 수줍음이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졌으나 협동심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육과정에서 구조를 제공하는 것에 더하여 자율성 등 유의미하게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특정 양육방식의 조합(combination)이 있는지 여부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교에서의 교사가 부모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의미를 확인한 만큼 후속 연구에서 아동에게 유의미한 성인을 함께 포함했을 때 동 모델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해 볼 것을 제언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구은정, 박재황 (2016).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와 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5), 289-312.

- <https://doi.org/10.21509/kjys.2016.05.23.5.289>
- 김도희 (202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의 직렬다중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8(5), 485-495.
- <https://doi.org/10.14400/JDC.2020.18.5.485>
- 김명숙 (2019). 부모의 구조제공이 중학생 자녀의 자율적 동기와 학업적 자기조절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자율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지**, 33(1), 27-50.
- <https://doi.org/10.17286/KJEP.2019.33.1.02>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세연, 정애경 (2019).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또래관계문제 군집 비교: 학교규모별 빈도와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협동 공감기술의 차이. **초등상담연구**, 18(1), 47-67.
- 김소현, 김아영 (201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개발과 타당화: 자기결정성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6(3), 717-738.
- 김지신, 박성연 (1997).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행동. **한국아동학회지**, 18(1), 125-142.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https://doi.org/10.21509/kjys.2017.03.24.3.313>
- 김태준, 이영훈, 오민아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IEAICCS 2016- 청소년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도현심 (1995). 6학년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4), 1-11.
- 박정은 (2020). 유아의 협동력이 또래관계를 매개하여 또래 상호작용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3-205.
- 박주희, 이은해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한국아동학회지**, 22(4), 1-15.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EA ICCS 2016-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연구보고 11-R5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지윤, 김미숙 (2017). 아동의 수줍음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 질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0(2), 143-154.
- <https://doi.org/10.17641/KAPT.20.3.3>
- 신성숙, 유영달 (2010).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양호도 및 부모 간 양육일치도가 정서적 부적응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4), 93.
- 유설희, 박보경, 도현심 (2015).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아동학회지**, 36(2), 55-74.

- <https://doi.org/10.5723/KJCS.2015.36.2.55>
윤선영, 구영진, 전진아, 현명호, 김효창 (2007). ADHD 아동에 대한 사회기술 훈련과 부모 교육 병합 치료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3), 529-545.
<https://doi.org/10.17315/kjhp.2007.12.3.004>
이슬아, 심상민 (2017).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협력적 문제해결력 반영 양상 분석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63**, 191-211.
<https://doi.org/10.22818/jeke.2017..63.191>
임주희, 오지현 (2020). 유아의 수줍음과 또래 간 의사소통 관계에서 어머니의 민감성,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3**(1), 23-36.
<https://doi.org/10.17641/KAPT.23.1.2>
정문자, 여종일 (2009). 아동의 불안과 우울증상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적 변인. **한국아동학회지**, **30**(3), 71-83.
홍세희, 정송 (2014).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이론과 절차. **인간 발달연구**, **21**(4), 1-24.
Asendorpf, J. B. (1989). Shyness as a final common pathway for two different kinds of inhib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3), 481-492.
<https://doi.org/10.1037/0022-3514.57.3.481>
Asendorpf, J. B. (1990). Beyond Social Withdrawal: Shyness, unsociability, unsociability, and peer avoidance. *Human Development*, *33*(4-5), 250-259.
<https://doi.org/10.1159/000276522>
Barstead, M. G., Danko, D. M., Chronis-Tuscano, A., O'Brien, K. A., Coplan, R. J., & Rubin, K. H. (2018). Generalization of an early intervention for inhibited preschoolers to the classroom sett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9), 2943-2953.
<https://doi.org/10.1007/s10826-018-1142-0>
Bullock, A., Liu, J., Cheah, C. S. L., Coplan, R. J., Chen, X. & Li, D. (2018). The role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n the links between shynes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Chines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68*, 117-126.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8.07.007>
Bullock, A., Xiao, B., Liu, J., Coplan, R., & Chen, X. (2022). Shyness,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peer difficulties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1*(1), 86-98.
<https://doi.org/10.1007/s10826-021-01979-3>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330-339.
<https://doi.org/10.1037/0022-3514.41.2.330>
Chen, J., Lin, T. J., Anderman, L. H., Paul, N., & Ha, S. Y. (2021). The role of friendships in shy students' dialogue patterns during small group discuss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67*, 102021.
<https://doi.org/10.1016/j.cedpsych.2021.10.2021>

- Chen, X., Zhang, G., Liang, Z., Zhao, S., Way, N., Yoshikawa, H., & Deng, H. (2014). Relations of behavioural inhibition with shyness and social competence in Chinese children: Moderating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3*(3), 343-352.
<https://doi.org/10.1002/icd.1852>
- Coplan, R. J., & Arbeau, K. A. (2008). The stresses of a “brave new world”: Shyness and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22*, 377-389.
<https://doi.org/10.1080/02568540809594634>
- Costa, S., Sireno, S., Larcan, R., & Cuzzocrea, F. (2019). The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need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60*(2), 128-137.
<https://doi.org/10.1111/sjop.12507>
- Crozier, W. R. (1995). Shyness and self-esteem in middle childhood.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5*, 85-95.
<https://doi.org/10.1111/j.2044-8279.1995.tb01133.x>
- Crozier, W. R. (2020). The Shy Child Adapting to the Challenges of School. In L. A. Schmidt, K. L. Poole (eds.), *Adaptive Shyness*. Springer.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https://doi.org/10.1037/1082-989X.1.1.16>
- Eggum, N. D., Zhang, L., An, D., Xu, J., Clifford, B. N., & Costa, M. (2022). Shyness, unsociability, and social avoidance during early adolescence: Associations with peer relationships and aggression.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2*(7), 937-964.
<https://doi.org/10.1177/02724316221088750>
- Ellis, S., Rogoff, B., & Cromer, C. C. (1981). Age segregation in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17*(4), 399-407.
<https://doi.org/10.1037/0012-1649.17.4.399>
- Evans, M. (2001). Shyness in the classroom and home. In W. R. Crozier, & L. E. Alden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social anxiety: Concepts, research, and interventions relating to the self and shyness* (pp. 159-183). NY: Wiley.
- Farkas, M. S., & Grolnick, W. S. (2010). Examining the components and concomitants of parental structure in the academic domain. *Motivation and Emotion, 34*, 266-279.
<https://doi.org/10.1007/s11031-010-9176-7>
- Grolnick, W. S., Raftery-Helmer, J. N., Marbell, K. N., Flamm, E. S., Cardemil, E. V., & Sanchez, M. (2014).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Implementation

- and correlates in three domains. *Merrill-Palmer Quarterly*, 60(3), 355-384.
<https://doi.org/10.13110/merrpalmquar1982.60.3.0355>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143-154.
<https://doi.org/10.1037/0022-0663.81.2.143>
- Harris, J. R. (1998). *The nurture assumption: Why children turn out the way they do*. Free Press.
- Harter, S. (1998).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s. In W. Damon &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553-617). John Wiley & Sons, Inc.
- Hastings, P. D., Zahn-Waxler, C., Robinson, J., Usher, B., & Bridges, D. (2000). The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in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6(5), 531-546.
<https://doi.org/10.1037/0012-1649.36.5.531>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4-40.
<https://doi.org/10.1080/03637751.2017.1352100>
- Hymel, S., Rubin, K. H., Rowden, L., & LeMare, L. (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6), 2004-2021.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0.tb03582.x>
- Jang, H., Reeve, J., & Deci, E. L. (2010). Engaging students in learning activities: It is not autonomy support or structure but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2(3), 588-600. <https://doi.org/10.1037/a0019682>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 167-171.
<https://doi.org/10.1126/science.3353713>
- Kokkinos, C. M., Kakarani, S., & Kolovou, D. (2016). Relationships among shyness, social competence, peer relations, and theory of mind among pre-adolescent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9, 117-133.
<https://doi.org/10.18747/phsg-coll3/id/1159>
- Li, Y., Coplan, R. J., Wang Y., Yin, J., Zhu, J., Gao, Z., & Li, L. (2016). Preliminary evaluation of a social skills training and facilitated play early intervention program for extremely shy young

- children in China.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5(6), 565-574.
<https://doi.org/10.1002/icd.1959>
- MacKinnon, D. P., Lockwood, C. M., & Williams, J. (2004). Confidence limits for the indirect effect: Distribution of the product and resampling method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1), 99-128.
https://doi.org/10.1207/s15327906mbr3901_4
- Markovic, A., Rose-Krasnor, L., & Coplan, R. J. (2013). Shy Children's coping with a social conflict: The role of personality self-theor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 64-69.
<https://doi.org/10.1016/j.paid.2012.08.002>
-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2), 324-340.
<https://doi.org/10.2307/1130510>
- Rubin, K. H., Coplan, R. J., Bowker, J. C., & Menzer, M. (2014) Social withdrawal and shyness. In P. K. Smith & C. H. Hart (Eds.), *The Wiley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pp. 434-452). Wiley Blackwell.
- Schmidt, L. A., & Poole, K. L. (2020). Adaptive shynes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L. A. Schmidt & K. L. Poole(Eds.), *Adaptive shyness*(pp. 25-40).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3-030-38877-5_2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 Practice*, 5(2), 175-235.
- Stewart, S. L., & Rubin, K. H. (2009). The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of anxious-withdrawn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2), 323-336.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6532>
- Zarra-Nezhad, M., Moazami-Goodarzi, A., Nurmi, J., Eklund, K., Ahonen, T., & Aunola, K. (2018). Children's shyness moderates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9), 3008-3018.
<https://doi.org/10.1007/s10826-018-1134-0>
- Zhang, X., Lau, C., & Yang, Y. (2021). Shyness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mong Chinese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fant & Child Development*, 30(6), 1-34.
<https://doi.org/10.1002/icd.2265>
- Zhu, J., Fu, R., Li, Y., Wu, M., & Yang, T. (2021). Shyness and Adjustment in Early Childhood in Southeast China: The Moderating Role of Conflict Resolution Skills. *In: Frontiers in Psychology*, 12, 1-11.
<https://doi.org/10.3389/fpsyg.2021.644652>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yle that provides structu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yness, teamwork, and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Sangwon Kim¹

Hyesook Lee²

Donghyun Nam³

Hanshin University/ Professor¹

Happy Kids Lab/ Psychological Counselor²

DODREAM Clinic/ Psychological Counselor³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 parenting method that provides structure has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in the pathway from children's shyness to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through teamwork. The responses of 2,607 4th graders from the 1st to 3rd Wave of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were analyzed. Shynes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and teamwork had a negative effect on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The effect of shyness on teamwork differed according to the level of parenting that provides structure. Finally, the pathway of shyness on the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through teamwork was found to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 aforementioned parenting method, indicating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method. The discussion cover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directions for follow-up studies, and practical implications.

Keywords : Shyness, teamwork, a parenting style that provides structure,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